

자유주의 통치성에서 파레시아까지: 저항하는 주체의 자유와 진실에 대한 푸코의 탐색

박수인(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)
한국정치사상학회 2023 3월 정기학술회의
2023년 3월 18일 15:00
경희대학교 청운관 619호

연구의 배경

- 미셸 푸코(1926-1984)의 1980년대 강의록에서 플라톤 독해.
- “플라톤적 철학적 주체성에 대한 푸코 식 고찰: 플라톤적 자기 배려와 ‘플라톤주의의 역설,’” 『한국정치학회보』 54(5), 2020.
- “철학은 어떻게 비판이 되었는가: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고찰,” 『철학사상』 83, 2022.
- 푸코의 파레시아 논의 자체에 대한 의문: 왜 파레시아가 ‘**진실의 용기**’ 인가?; 푸코에게 ‘진실의 용기’ 가 무엇이었나?; 푸코는 어떤 경로로 이 개념에 도달했는가?
- 이른바 ‘윤리적 전회’와, ‘통치성’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 많지만, 통치성 개념과 연계된 윤리적 개념으로서 특유하게 푸코적인 파레시아 그 자체에 대한 충실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.

연구의 가설

- 푸코의 파레시아 연구는 저항이나 정치적 투쟁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, 푸코 자신이 갖고 있던 '자유' 관념에 대한 성찰의 경로를 보여준다.
 - 우연히 찾은 파레시아: 자유주의 통치성 → 사목과 대항품행 → 영혼지도에서 스승의 파레시아 →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철학화된 파레시아
 - 철학적 파레시아: 자기 수양을 지속하는 삶의 태도/덕성
 - 비판으로서의 파레시아: 진실에 대한 통념과 그것과 맞물린 통치적 규범성을 넘어 자기 생의 진실을 구축하는 주체
-
- 기존의 철학적 질문: 무엇이 진실인가?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는가?
 - 기존의 윤리적 질문: 무엇을 해야하는가? 왜 그것을 해야하는가?
- => 어떻게 그것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가?
- 푸코의 질문: (1)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통해 통치 받는 서구적 개인의 주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? (2) 우리 자신에 대한 역사적 진실(역사적 존재론)의 인식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?

연구 방법

- 1976년 『지식의 의지』에서 1984년 『쾌락의 활용』 사이 College of France 강의록
 - 1978년 『안전, 영토, 인구』
 - 1979년 『생명관리정치의 탄생』
 - 1980년 『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치(On the Government of the Living)』
 - 1981년 『주체성과 진실(Subjectivity and Truth)』
 - 1982년 『주체의 해석학』
 - 1983년 『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통치(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)』
 - 1984년 『진실의 용기(Courage of Truth)』
- 철학적·윤리적 전회의 계기가 1980, 1981년 강의에서 선포됨
- 생명관리정치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연구했던 '자유주의 통치성'에 대한 탐구, 마지막 두 해의 소크라테스적 '파레스시아' 탐구가 『성의 역사』 출간물에 포함되지 않았음
- "여러분이 아시다시피, 저는 가재처럼 옆으로 나갑니다"

자유주의 통치성과 비판적 합리성

- 1978년 『안전, 영토, 인구』, 1979년 『생명관리정치의 탄생』
- 1980년 『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치(On the Government of the Living)』 (제목만)
- 『지식의 의지』에서 제기한 생명관리 정치(biopolitics): 성(sexuality)을 매개로 과학적 지식의 대상으로, 규율하는 조절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인
- 생명관리 정치의 더 넓은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 본 자유주의 통치성
- 18세기 중농주의부터 20세기 신자유주의까지
- 사물에 대한 지식이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규제하는 원리로 등장
- 자유주의 통치성은 통치 비판의 합리성
- 국가 대 사회라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통치-비판 작동 틀: 더 많은 자유, 더 적은 통치, 더 작은 국가; 더 많은 자유의 안전, 더 많은 통치, 더 큰 국가

파레시아와 자기(삶, bios) 배려(돌봄, 수양)의 기술

- 기독교적 고백의 두 형식: 신앙 고백과 자기 해석적 고백
- 진실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통치의 객체
- 고대적(이교적) 자기 배려와 영성: 자신을 진실의 주체로 단련하여 지고의 복락을 얻는 삶을 목표로 함
- 영성(spirituality)의 틀에서 영혼 지도 스승의 역할과 파레시아
- 전혀 다른 의미의 정치적 파레시아 발견: 아테네 민주정과 파레시아
- 정치적 파레시아의 타락(?)에 대한 비판과 철학적 파레시아
- 소크라테스의 진실의 용기: 자기 배려 삶의 태도, 소크라테스 고유의 진실함
- 플라톤주의와 견유학파
- 철학의 현실성: 권력과의 관계, 권력(자)에 대한 발언

저항/비판하는 주체를 향한 푸코의 모색

- “우리 자신의 역사적 존재론”: 푸코 식 지적 작업의 ‘철학적 현실성’
-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속을 통한 주체화
-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비판을 통한 주체성
- 자유주의 통치성을 넘어, 자유를 활용하기
- 비판하는 주체의 삶: 지식의 대상에서 진실의 주체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기
- 푸코가 묻지 않는 (물을 수 없거나 물을 필요 없는) 질문들: 무엇이 (절대적으로) 진실인가? 인간은 (본질적으로) 자유로운 존재인가?

연구의 효과?

- 푸코적 파레시아가 제안하는 윤리의 설득력
 - 진실의 용기의 현실적 토대: 신념이나 확증 이전의 역사적 현실
 - 자유의 정치적/윤리적 가치: 단념하거나 통제하거나 지키거나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자유의 활용
 - 평등주의 윤리와 파레시아 윤리의 관계: 일정한 긴장 관계?
 - 정치적 올바름과 파레시아 윤리의 관계: 일정한 긴장 관계?
 - 자기 통치 윤리의 보편적 통치성화?: 플라톤의 『법률』의 예
 - '정치철학'으로 읽는 푸코